

임실 사선대 장미공원 조성

조각공원 내 목단·사계장미 500주 심어

임실군이 자랑하는 국민관광지 사선대가 장미가 만발한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10일 임실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관촌 사선대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목단과 장미원을 조성했다.

사선대 관광지 조각공원내에 조성한 목단과 장미원에 목단 100주와 사계장미 500주를 식재해 목단과 장미가 사선대 관광지를 뒤흔들게 장식할 예정이다.

장미공원이 조성되면 사선대는 기존

의 꽃잔디와 철쭉 등과 한데 어우러져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할 전망이다.

네 명의 신선이 놀던 곳이라 전해질 만큼 빼어난 경관이 으뜸인 사선대는 철쭉 및 꽃잔디가 활짝 피어 어우러진 공원에는 주로 가족단위 나들이와 연인들이 산책을 즐기는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가침밭달나무, 산개나리 군락 등 천연기념물과 임실 남자투가 서식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 생태자연 학습장과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올해 마무리되는 사선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자, 사계절 초화원, 숲속쉼터, 생태연못의 수질개선과 사선문 섬미산성 탐방로 등 생태체험학습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여기에 장미공원까지 조성되면 철쭉 및 목단 등이 피어나 향기가 가득한 곳에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가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꽃과 함께하는 사선대 관광지 내의 조각공원은 세계 여러 나라의 뛰어난 조각품과 인근 오곡리 미술촌에서 제작한 조각품들이 사선대의 아름다운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객들의 볼거리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현재 목단과 장미가 피어 기존의 꽃잔디와 철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철쭉 및 목단 등이 피어나 향기가 가득한 곳에 장미의 매혹적인 향기가 가득하길 기대해 본다.

임실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앞으로 목단 관광객의 아름다운 추억을 담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한편 사선대 국민관광지는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0일 임실군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관촌 사선대국민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목단과 장미원을 조성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꿈꾸는 물고기' 인기

남원 전시관 지난 주말 1,500여명 방문 성황

남원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전시관에서 운영 중인 '꿈꾸는 물고기' 특별전에 지난 주말 1,500여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소규모 특별전은 척추동물의 진화과정을 물고기의 꿈에 비유한 기획 전시로 '진화과정전시관', '곤충놀이터',

'곤충표본관' 등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진화과정전시관'에는 다양한 동물의 먹이 먹는 모습과 생태적 습성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카멜레온이 먹이를 먹기 위해 혀를 길게 내미는 장면이나 주변 환

경에 따라 자유롭게 색을 바꾸는 모습은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이밖에도 '곤충체험관'과 '곤충표본관'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곤충체험과 세계희귀곤충표본은 자연 놀이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꿈꾸는 물고기' 특별전은 전 연령대가 입장가능하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며 전시관 입장객은 추가비용 없이 관람할 수 있다.

임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나서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만식, 김학성)는 10일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제2기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평소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섰던 민간단체 대표와 유관기관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협의체는 임실읍행복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활성화방안, 복지사각지대 발굴·예방, 홍보강화 순으로 교육을 실

시하여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만식 공동위원장은 "눈과 귀를 열고, 손과 발로 뛰는 협의체를 만들어 가겠다"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 및 민간지원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매아리

임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

임실군과 장애인연합회는 10일 군민회관에서 제38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민 군수와 문영두 임실군의회장 등 기관사회단체장을 비롯해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전달, 격려사, 축하 등으로 이어진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생활의 활력 제공을 위한 마술쇼, 변검술 등 예술단의 위안공연과 장애인들이 참가한 노래자랑이 열려 장애인들의 숨은 끼를 맘껏 발산하는 즐거운 무대로 꾸며졌다.

이날 심민 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3천여 임실군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적극 해결하고, 함께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는 동행의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며 "장애인 상호간 화합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군은 특히 장애인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좋은 정책 등을 제안받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데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프로그램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임실군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며 입을 모았다. 순주원 회장 "오늘 행사를 위해 도움을 주신 자원봉사자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순창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 운영

순창군이 일상생활에서 호흡, 체조, 심심운동을 통해 마음과 정신을 닦는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본격 운영해 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10일 순창군에 따르면 이번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은 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개반으로 나눠 5월 14일부터 11월까지 주 2회 총 50회 정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방기공체조교실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고 명상, 호흡법 등의 습득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집중력 강화, 올바른 자세교정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과 증상 완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군 측은 참여자들의 사전 사후 기본검사를 실시해 교육의 효과도 검증하고 만성질환사업과도 연계해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요리교육'을 시작해 한국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돕고 있다.

"한국요리에 푹 빠졌어요"

순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여명 요리교육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선)에서 다문화가족 여성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개선 요리교육'을 시작해 한국문화에 대한 빠른 적응을 돕고 있다.

'식생활개선 요리교육'은 지난 9일부터 순창 아이쿠아카데미(원장 최은경) 조리실습실에서 시작했으며 오는 10월까지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누어 주 2회 운영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밥과 반찬을 먹는 한국식단에 이주여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밑반찬 만드는법과 소스를 활용한 요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의 전통이 살아있는 순창 가정식 소스를 활용한 요리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장류축제에서는 교육 참가자 4명이 한팀을 이뤄 순창고추장요리 전국경연대회에 참석해 자체개발 소스와 순창소스를 접목시

킨 갈비요리를 선보여 특별상을 수상 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올해도 교육의 특성을 살려 요리경연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이번 교육이 한국요리에 서툰 이주여성들의 요리 실력은 물론 식생활 개선을 통해 가정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이주여성은 "체계적인 요리교육을 통해 한국음식문화에 더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겠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창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교육과 제과제빵·컴퓨터 등 직업훈련교육은 물론 어울림 문화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에 남아 더 큰 꿈을 꾸겠다"

양영수 순창군수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순창군수 예비후보에 등록해 경선을 치른 양영수 예비후보가 현 군수인 황숙주 예비후보의 경선 통과와 관련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게 되었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를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해주시며 함께 울고 웃으며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주신 순창군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하

겠다"며 "황숙주 예비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나 자신의 부족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군민들에게 선택받을 때까지 지역을 묵묵히 지키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랑해주신 군민들과 민주당 당원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당에 남아 더 큰 꿈을 꾸겠다"고 다짐했다.



양영수 예비후보

